

\*\*\* 이 주간에 묵상할 말씀 \*\*\*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 : 16-18

\* 민경업 목사 방송 설교 : AM 1190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 우리의 감사

- **십일조** : 강순희/정희 김성수/유순덕 김줄리아나 명성천/경란 문승용/은주 박내원/소정 박민철/김경숙 백승우/경화 송황희/미서 신동국/소피아 신영구 유병호/혜진 이민중/수남 이범식/영순 임창열/내숙 정문수/명옥 무명1명
- **감사헌금** : 김기자 김영국/연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김영임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업/미숙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박민철/김경숙 (지켜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백승우/경화 이명원/정균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선채 장종섭/순옥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애덕 (주시는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태수/한재연 (범사에 감사) 홍민자(성찬식 감사)
- **주일헌금** : 김소피아 김완섭/향영 류경진/마리아 류성민 민경업/미숙 민병수 박진/현숙 신동심 양은영/정자 윤미경 이재문/김지수 이정화 임막동/정숙 (2회) 전영각/경심 정문수/명옥 정영숙 조중현/미셀 최경호/사라 표미희 한홍철/혜정 무명4명
- **건축헌금** : 송영찬/영진/영수
- **선교헌금** : 서상연/지연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 별도의 헌금 시간은 없습니다. 교회당에 오셔서 직접 헌금하시거나, 교회 주소로 헌금을 보내주시고, 헌금자 명단에 빠진 분은 연락해주시시오.
- 115헌금은 한(1) 가정이 한(1) 주에 \$5이며, 모기지 헌금과 함께 건축헌금에 포함됩니다.

헌금 총계 : \$5,708.00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빌4:18).

□ 예배 도우미 .....

		7/24	7/31	8/7	8/14
대표기도	주일 1	이명원	명성천	한홍철	강순희
	2	이명원	명성천	한홍철	강순희
	토	7/23강정희	7/30우정은	8/6신동심	8/13유순덕
1부간식봉사	희락순(우종복)	소망순(임창열)	반석(백승우)	포도원(명성천)	
2부점심봉사	희락순(우종복)	소망순(임창열)	반석(백승우)	포도원(명성천)	
안내위원	이명원 이민중 임창열 임내숙 박내원 박소정				
헌금위원	백승우 이민중 박소정				

1.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미국의 바이든 정부를 축복하시고, 북한이 변화되게 하시며, 캘리포니아에 더 많은 비를 내려주소서.
2.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해 주소서.
3.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কমিশনের 이재환 선교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소서.
4.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게 하시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5.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소서.
6. 우리교회에 전도와 선교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지상명령에 충실하게 하소서.
7. 담임목사님이 성령충만하여 강단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적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소서.

8. 요일별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우들	월	이영순 성병연 박해용	화	전순혜 나종원 이민중
수	김병은 윤상월 박종미	목	양은영 김조앤 백덕임	금	김연권 최영자 서상연

- ◁파송> 캄보디아/김창규 · 정영란(1가정)
- ◁후원> 나미비아/임선희, 러시아/길요한 · 남지연, 김문일 · 성숙, 멕시코/전재철 · 순혜, 미얀마/이 동 · 수잔, 브라질/이영대 · 애심, 아프가니스탄/양수진 인도/김덕래 · 초미성, 중국/이주열 · 지희, 한국(본부)/이주희 · 변희예(10가정)
- ◁기관> 미국 কমিশন(이재환) 북한 새터교회/장철호(한국) · 빛나라선교교회/이종환(미국) 중국 GBM(안경숙) 한국 이랑학교(정용갑)(5기관)

담 임	민경업 목사 (714) 403-2193	사무장로	우종복 장로
행 정	류경진 목사 (714) 719-9688		강순희 장로
교육부	신소피아 선교사 (714) 422-7841	찬양팀 리더	백승우 장로
한국학교	정영숙 사모 (626) 376-6852	반 주	조중현 집사
			김신희 권사
			류마리아 사모

주일예배 : 1부 - 8시 / 2부 - 11시  
토요새벽예배 : 6시 30분

- 교 육 부: 주일 오전 11시[108]
-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5시30분 [본당 & 라이브톡]
- 주일장로기도모임: 오전 10시[101]
- 나침반한국학교: 주일 오전 10시[102]
- 주일권사기도모임: 오전 10시[206]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714-403-2193

# 주 일 예 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예배초청 I nvocation	민경업 목사
찬양과 경배 Praise and Adoration	문들아 머리 들어라(기쁨220)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행복)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은혜)
찬양	사도신경
기도 Prayer	지난 이레 동안에(44)
찬양	이명원 장로
찬양	다같이 /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기쁨213)
말씀선포 Worship thru Proclamation	1부/내가 주인 삼은(기쁨127) 2부/에이레네-복음 밖에 없습니다
헌금 Worship thru Offering	<리얼 크리스천 시리즈 (2) - 사랑> <b>“네 형제를 사랑하라!”</b> 요한일서 3 : 10-24 (신약 p.391)
인사와 교제 Koinonia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송 Worship in Song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찬송	어두운 밤에

말씀묵상새벽기도회	토요새벽예배
월-금 / 오전 5시 30분	오전 6시 30분
<b>민경업 목사</b> 본당	<b>민경업 목사</b> 본당

\* 말씀묵상새벽기도회를 집에서 “라이브톡”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면 류경진 목사님에게 알려주시시오.

# “누가 이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까 염려하지 말라” 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에서 한 말씀에 따르면 세상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이란 세상에서 나오는 근심, 혹은 세상 방식을 따르는 삶에서 비롯된 근심이며, 이런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근심이 바로 그것이며 이는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다윗이 그런 근심을 했습니다. 죄를 짓고 조마조마하던 차에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서 “당신이 바로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지적할 때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런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인하고 주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이런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고 그 영혼을 살립니다.

반면에 사울은 세상 근심에 빠졌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을 버리자 자기의 체면을 백성들 앞에서 세워달라며 전전긍긍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세상 근심에 빠져 주님을 배반하고 또한 그렇게 행한 자신에 대해 실망하여 극단 선택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정말 세상 근심의 끝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근심은 하지 말아야 하나 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삽니다. ‘저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텐데... 어찌나...’ 그러면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생애를 살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식구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안타까이 근심하며 부르짖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살립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롯의 가족이 살았고, 모르드개 한 사람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보호받았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복음으로 전복되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은 존 나스 한 사람 때문에 에스코틀랜드가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여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던 선지자 예레미야의 절규가 새삼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렘 5:1). 누가 이 한 사람이 될 것입니까?[M]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성도들(17일)

## □ 교회소식.....

- 1. 강사 예고 :** 다음 주일(31일)에는 **한성민 선교사님**(통일소망선교회 사무총장, 북한선교 중 중국 감옥 30개월 수감)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2. 북한선교 복음 컨퍼런스 :** 다음 주일(31일) 오후 3-7시
  - **장소 :** 나침반교회      • **주최 :** 통일소망선교회
  - **강사 및 주제 :**
    - ① 이빌립 선교사 : 통일선교와 복음의 능력
    - ② 서예레미야 선교사 : 미국에서 할 수 있는 북한선교
    - ③ 심양섭 목사 : 나그네의 마음, 그리고 탈북 청소년 사역의 필요
    - ④ 한성민 선교사 : 북한 땅의 회복과 부흥
  - **저녁 식사가 준비됩니다.**
- 3. 남북청년연합 일일수련회 :** 8월 2일(화) 오후 3-9시
  - **장소 :** 나침반교회      • **주최 :** 통일소망선교회
- 4. 큐티 교재 :** 생명의 삶 8월호 준비되었습니다.(\$5)
- 5. 교회당 청소 :** 남선교회에서 시행하는 교회당 청소가 **30일 토요일예배 후에** 있습니다. 누구나 원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6. 8월 사역 계획 :**
  - 8/15-20(월-토) 교회창립 특별새벽기도회
  - 8/21 교회창립 24주년 감사예배

## □ 태국에서 온 편지.....

무척 더워진 계절에 안부 인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여러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가고 있는 지금은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영원한 닻이신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 • 집을 열어 말레이시아 영혼들을 섬기는 대접 사역들

“우리 집에 식사하러 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와도 좋아.” 김성숙 선교사가 ‘씨팅’ 과 ‘이링’ 자매들과 통화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1년 이상 관계를 맺은 말레이시아 청년들입니다. ‘씨팅’ 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말레이시아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회사에서 직장을 찾아서 올해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씨팅’ 이 성균관대학원에서 엔지니어 식사공부를 하고 있는 ‘카이러’ 자매를 저희 가정으로 데리고 왔네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카이러’ 자매가 같은 대학원에서 공부한 25살 ‘용익풍’ 형제를 인도하여 저희 가정을 찾았네요. 이 형제는 5월 말에 졸업하고 직장 인터뷰를 하는 중인데 그는 말레이시아 북쪽 지역에서 유학 왔습니다. 유학 와서 몇 년 동안 집을 떠난 말레이시아 청년들이 고향이 그림고 부모를 보고 싶어 하네요. 저희가 따뜻한 홈 같은 대접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목사 신분인 것을 알면서도 저희 집을 찾아오며 저희에게 자신들을 환영하여 주어서 고맙다고 하네요.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맡겨 주신 귀한 영혼입니다.

“카이러, 고향 동남아 음식 먹고 싶으면, 우리가 너희 대학 캠퍼스로 가서 맛있는 것 사 줄게. 그리고 친구와 함께 와도 돼.” 6월 18일 대학원을 방문하였는데 ‘카이러’ 가 말레이시아 친구 ‘웬디’ 와 함께 나와서 좋은 식사 교제를 나눴습니다. ‘웬디’ 는 말레이시아 동쪽 지방에서 온 유학생으로 엔지니어를 공부하는 대학원생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된 ‘이링’ 은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한국의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약 한 시간 떨어진 곳으로 홀로 이사 가서 외로운 상황입니다. 그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기도하는 중입니다. ‘아린’ 은 서울대학교 졸업 후 말레이시아 수도 콜라롬포에 돌아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와 교제를 거의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 8월 달에 말레이시아 교회와 목사님들을 방문할 때 저희 부부가 그녀를 만날 계획입니다.

# 토 요 새 벽 예 배

23일 / 오전 6시 30분

예배초청 / 웨키나 찬양팀

찬양과 경배 /

문들어 머리 들어라(기쁨220)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행복)

교독문 27 번 / 시편 51편

찬양 / 다 감사드리세 (66)

기도 / 장정희 권사

찬양 / 아침 안개 눈 앞 가리듯(기쁨321)

성경봉독 / 고린도후서 9:1-15

말씀 / 민경엽 목사

## “참된 헌금”

찬양 / 내가 주인 삼은(기쁨127)

인사와 교제 / 다같이

찬양 / 어두운 밤에

## □ 태국에서 온 편지(계속).....

### • 8월 태국과 말레이시아 방문 계획

“선교사님 내외분 방문을 환영합니다. 두 분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태국 제자였던 목사로부터 받은 소식입니다. 저희 부부는 코로나의 시작 시기였던 2020년 1월에 태국을 떠난 후, 태국과 말레이시아 교회와 목사님들을 방문할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네요. 우리는 아시아의 목사들에게 성경적 제자훈련 사역을 돕는 촉매제 역할을 감당하여 자신의 민족을 제자 삼도록 돕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충실한 선교 동역자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 • 기도제목

1. 집을 열어 대접을 통하여 말레이시아인과 태국인들을 섬길 수 있는 주신 주님께 감사.
2. 다음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씨팅, 차우만, 카이러, 용익풍, 웬디.
3. ‘이링’ 과 ‘아린’ 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도록.
4. 8월 달 태국과 말레이시아 방문을 통한 사역을 위하여.
5. 7월 25일에 미국 휴스톤에서 레거시에 관한 아시아 목사들 심포지엄에서 강사로 섬기는 사역을 위하여.
6. 디아스포라 귀환 사역을 통하여 성경적 제자 사역의 큰 물결이 생기도록

2022년 7월 김대순, 김성숙 선교사 올림

주일(24)	월(25)	화(26)	수(27)	목(28)	금(29)	토(30)
사39-41	사42-44	사45-47	사48-50	사51-53	사54-57	사58-61